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 5.0%

농진청, 조사결과 발표... 질병에 부정적 영향 주는 원인으로 장시간 근무 꼽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는 농업인의 안전보장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43003호)로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촌 표본 가구(1만 207가구)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한 전국 추정수치를 결과로 산출했다.

조사 결과,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휴

업 1일 이상이 발생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0%였다. 연도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2018년 4.8%에 비해 0.2%p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여성 5.8%, 남성 4.3%로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1.4%, 50대 2.7%, 60대 4.9%, 70세 이상 7.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졌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 질환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5.2%, 남성 3.7%로 남성보다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장시간 근무(27.6%), 반복동작(22.8%), 불편한 자세(16.8%), 과도한 힘 또는 중량물 취급(13.0%)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요인이 가장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조 동영상을 통해 부위별 운동 처방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점검 사항 등을 농업인안전365(farmer.rt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점검 사항은 책자로도 제작, 배포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

도록 공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팀장은 "조사 결과를 통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의 현황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농작업별 건강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기술 개발과 확산으로 농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 고무미를 재배하는 여성 농업인 유화자 씨는 "밭에서 작업할 때, 허리나 무릎 관절을 자주 쓰기 때문에 관절염, 허리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통계 자료가 여성 농업인의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 삽입 안내판 확대 설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 삽입된 안내판을 확대 설치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LX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국 전체 682개 지적재조사지구에 QR코드 안내판을 1,400개 이상을 설치해 지적재조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

QR코드 안내판은 지적재조사 마을회관·노인정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됐다.

국민 누구나 QR코드에 접속하면 바른땅(www.newjtk.go.kr)과 LX공사홈페이지(www.lx.co.kr)로 연결돼 지적재조사의 절차·사업효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X공사는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내의 지역주민이 선정한 이장·동장 등을 지역전문가로 위촉해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효율적인 운영 체계도 갖췄다.



/김윤상 기자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회장단 회의를 열고 철근 수급 불안 등 도내 건설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철근값 급등 공사중단 대책 논의 | 건설 전북도회 회장단 회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최근 철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해 공사 중단 및 그로 인한 공기지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그 대응책을 논의

했다.

또한 회장단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이 지역 영세 종합업체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소규모 공사의 안전·품질을 악화시키는 법안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본회와 연계한 대응도 결의했다.

윤방섭 회장은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철근 수급불안과 가격폭등으로 제때에 시공을 하지 못하여 그 피해가 건설업계에 전방위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주권처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NH오픈뱅킹 휴강스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오픈뱅킹 카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20일까지 NH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휴강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인뱅크의 NH오픈뱅킹 서비스에서 타은행 계좌 또는 타사카드를 처음으로 등록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600명을 추첨해 1등 LG올레드TV 65인치(2명), 2등 LG스타일러(3명), 3등 다이슨 헤어스타일러(5명), 4등 자이갈 전기그릴(10명), 5등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50명)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건보 남원지사, 청렴 캠페인

국민건강보험 남원지사(지사장 박상길)는 참여환경운동연대와 남원시청(환경과장 김순자)과 노암동 요천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금연 실천 및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의 정부청렴도 측정 결과 '8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공단남원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공공의 료기관 확충 및 특사업 도입,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물을 전달하였으며, 2021년 삼진강 살리기 운동에 참여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를 위한 토종어류(가물치) 방류를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모바일 플랫폼 온뱅크 100만 가입자 돌파

신협, 출시 1년 6개월만에... 비대면 조합원 가입 등 가능

신협이 '금융 노마드족'의 눈길을 끌며 빠르게 금융업 시장 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유식 이하 신협)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모바일 플랫폼 '온뱅크'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협의 온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 비대면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앱으로, 높은 이용의 전용 상품 및 편리한 화면과 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앱 런칭 이후 월평균 6만 명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출시 6개월 만에 예·적금 총액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신협은 104만9,086명(5월말 기준)의 회원 및 거래 데이터(2020.01~현재)를 바탕으로 최근 금융 트렌드를 분석 및 발표했다.

온뱅크 앱의 인기는 모바일 퍼스트 세대인 2040 세대가 주도했다.

온뱅크 전체 이용자 중 각각 ▲20대 13.7% ▲30대 22.6% ▲40대 28.7%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경우, 여성 조합원들이 모바일 앱을 이용했다. ▲50대 온뱅크 이용자의 여성 비율이 63.1% ▲60대 이상 온뱅크 이용자의 여성 비율 58.8%로 50대 이상 남성 이용자의 1.5배 이상 되는



수치다

인기 주도한 온뱅크 전용 상품... 온뱅크 계좌 개설 건수 상위 10개 중 6개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확인됐다. 순서대로 ▲유니온정기예탁(1위) ▲e-파란적금(3위) ▲유니온정기적금(5위) ▲유니온자유적금(7위) ▲드리빙박스(9위) ▲레이디4U적금(10위)이다. 초저금리 기조에 초공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받으려는 금리 노마드족들이 절세 및 이율 혜택을 위해 물렸기 때문이다.

온뱅크 앱을 통해 가장 많이 개설된 금융상품은 '유니온정기예탁'이다. 신협의 유니온 시리즈는 지역 신협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자 소득세 14% 면제, 농어촌특별세 1.4% 부담)을 누릴 수 있어 인기다. 또한 기본 금리도 전국신협 평균 예금 금리를 따라 시흥은행 대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급여예치 등 간단한 무대출 만기 시 최대 0.6%의 우대 이율을 제공하는 'e-파란적금', 하루 단위로 정기예탁(12개월) 절반 수준의 이자를 주는 파란통장 '드리빙박스', 여성 고객 특화 상품 '레이디4U' 적금 등이 순위에서 올랐다.

청년은 목돈 모이기, 중장년은 목돈 굴리기 추세

세대별 인기 상품의 경우, 10~20대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적금 상품이, 40~60대는 복돈을 벌이기 위한 예탁 상품이 차지했다. 10대 남성 온뱅크 이용자가 가장 많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e-파란적금'이었으며, '레이디4U적금', '드리빙박스', '유니온정기적금'도 10~20대 남녀 조합원에게 인기가 있다. 40~60대는 남녀 조합원 모두에서 '유니온정기예탁'과 '정기예탁'이 1, 2위에 올랐다.

김유식 신협중앙회장은 "먼저 온뱅크가 100만 가입자 수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온뱅크는 선진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신협이 평생 여부가 가치가 결합된 따뜻한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식품명인 기록자료 공공 개방

aT-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 협약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영상, VR 및 3D 자료와 고품질 저작물 제작 때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00여건의 자료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명맥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20년 이상 한 분야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정원의 공공저작물 확충사업에 aT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에 참여해 전통문화를 기록화하고, 국민이 저작권 걱정

없이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한 장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작물로서의 보존 가치와 우수성이 인정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문화디지털 전문기관인 문정원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기록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상생·포용적 금융 강화

전북농협, 올 상반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 및 포용적 금융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를 지난 1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농·축협 위원 20여명과 본부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2021년 상호금융 업무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상반기 사업 추진방향, 여신, 수신 디지털금융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연택트문화·비대면 거래·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이 농축협에 많은 만큼 비이차이익 증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하다"며 "전북농협이 코로나9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건설한 수익구조를 갖춰 최고의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지역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생금융 및 포용적 금융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 업무개선 실무협의회'를 지난 1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운 기업 지원

무역협회 전북본부, 현장 컨설팅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전북본부는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국내 역량 있는 국제 물류추진업체들의 전문 컨설턴트가 전라북도내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물류 현장 컨설팅은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프로세스 안내, 해상·항공·내륙운송 등 운송비 절감 방안을 알려주는 일반 컨설팅과 공급망(SCM) 관리 등 기업별 물류 최적화 방안을 제공하는 심화 컨설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컨설팅은 물류 관세·통관, 물류센터 등 분야별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다.

심화 컨설팅은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장기 컨설팅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협회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필요 시 전화 및 화상 컨설팅도 병행한다.

컨설팅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02-6000-5628, wk.oak@ki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무역협회 이강일 전북지역본부장은 "최근 선택 부족 높은 해상운임, 공(空)컨테이너 확보난 등으로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수출입 물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물류비 절감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